

비구니 명사 7명 곧 탄생된다

조계종 법계위서 '확정'

조계종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비구니 명사 7명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혜정)는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지난 9월 5일 열린 제 171회 임시총회 때 명사법계특별전행에 동의한 혜은, 광우, 묘연,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등 6명과 함께 정화 스님에 대한 명사 품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구니 명사는 비구의 대종사 품계와 동일하며 비구니스님 가운데서 가장 높은 품계다. 조계종 기획실 윤승환 홍보팀장은 17일 "법계위원회 회의 결과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비구니 명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진각복지대상 신설

진각복지재단, 상금 700만원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장이 불교계 전반에 걸쳐 불교 복지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는 사회복지현장의 숨은 일꾼을 찾아 표창하는 '진각복지대상'을 신설했다.

진각복지재단은 현재 △전 사상부문에서 가장 공적이 뛰어난 인사에게 수여하는 '진각복지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수여하는 '복지실현상'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등 3분야에 걸쳐 11월 30일까지 단체 및 개인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단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했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수상경력이 없는 후보자여야 한다.

부상으로는 총 7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5시 서울 빅토리아 호텔에서 열리는 '2006년 진각복지재단 회향의 밤'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의제 · 한글의식 · 어린이 포교

종책만 있고 실천은 없다

중앙종회의원 통일가사 착용 절반 · 한문의식 그대로...자율성 한계 드러내

11월 15일 제14대 정기중앙종회가 열리고 있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55명의 종회의원 스님들이 13일에 이어 속개되는 종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사를 수하고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나 조계종에서 보급하고 있는 삼보륜 마크와 자신의 법명 및 법계가 명기된 가사를 수하고 있는 스님들은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통일된 색이어야 할 가사 색 역시 진한 파색과 연한 파색이 마치 다른 색으로 느껴질 정도로 현차만별이었다.

최근 조계종이 종책으로 추진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 종단 중진급 스님들조차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의제 문제.

조계종은 2001년 법계법을 개정하면서 법계위원회 산하 의제실무위원회를 두고 승려 의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가사원을 설치하고 종단차원에서 가사불사를 진행하면서 통일 가사를 보급하고 있지만 스님들의 동참률이 높지 않다. 지난 9월 19일 가사불사 제1차 집안식과 조계사 가사불사당 사원들의 원로원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교역직 스님들과 13대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통일 가사를 무료로 지급했지만 아직까지 종회의원 스님들조차도 절반 정도만 통일 가사를 수하고 있는 정도다.

통일 가사는 법계제도 정착을 통한 승가의 위상 정립은 물론 수행풍토를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로 종단 차원에서 빠른 보급을 위해 전격하고 있는 종책이다.

조계종 가사원 집행부장 수현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관 내에 가사원을 설치하고 불철주야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하루 20여벌 정도의 가사를 제작하고 있다"며 "올 12월 19일 2차 집안

에서 불행된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개원법회에서도 한문 <반야심경>과 삼귀의, 사후서원으로 의식이 집전됐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교육원장을 비롯해 포교원에서 '한글의식집' 관련 업무를 담당한 스님들은 물론 총무원들도 동참했다. 하지만 한문으로 의식이 진행되는데 대해

교수 등의 감수를 받았지만 원래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운율이 맞지 않는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다.

하지만 종단 차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 종도들에게 공식발표 행사를 할 때 <한글통일법요집>을 교재로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종단이나 교구본사의 공식 행사 때 <한글통일법요집>을 교재로 사용한다면 파급효과가 생겨 의식이 빨리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단체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한글의식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개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한글통일법요집>을 교재로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종단이나 교구본사의 공식 행사 때 <한글통일법요집>을 교재로 사용한다면 파급효과가 생겨 의식이 빨리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어린이 포교에 대한 종단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11월 11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 포교교전대회를 열고 '조계종 사찰은 모든 활동에 앞서 어린이포교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어린이법회 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포교 선언문까지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올해 1억원에 불과했던 어린이 포교 예산을 내년부터 3억으로 증액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이 포교를 진작시키기 위한 종합조사 없는 실정이지만 중앙종회에 관련된 법의 제 개정안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종법을 통해 강제 실천 사항으로 어린이법회 신설, 어린이법회 교사 처우문제 등을 명기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의지도 구두선에 불과할 수 있다.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은 "종단의 종책이 개별 사찰과 스님들에게 빨리 전달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종도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종책을 빨리 확산시키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의 주요 종책에 대해 중진급 스님들조차도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15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삼보륜이 새겨진 통일가사(맨 오른쪽)를 수한 스님도 있었지만 기존의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절반이 넘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식을 통해 가사를 신성한 스님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며 최대한 빨리 모든 스님들이 통일 가사를 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의식의 한글화와 대중화를 위해 3년 2개월의 노력으로 <한글통일법요집>을 발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다수 사찰에서는 한문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11월 13일 조계사 대웅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까지 스님들의 법회는 전통 의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출가와 재가의 의례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문제다. 종단에서 의식을 통합하고자 한글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법요집을 한글화할 때 국문학과

- 시방세계 9번
- 조계종 '어린이포교전대회'
- 호남 최초 비구니강원 설립 7번
- 미국 군중관련 시설 탐방기 8번
- 제4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 14번
- 이어령 박사 특강 중계
-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 28번
- 봉선사 강설대법회
- 우릉스님 '정토수부경' 24~25번
- 도반의 향기 17번
- 김영우 '꼭쇠 중대장'

- 시방세계 9번
- 조계종 '어린이포교전대회'
- 호남 최초 비구니강원 설립 7번
- 미국 군중관련 시설 탐방기 8번
- 제4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 14번
- 이어령 박사 특강 중계
-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 28번
- 봉선사 강설대법회
- 우릉스님 '정토수부경' 24~25번
- 도반의 향기 17번
- 김영우 '꼭쇠 중대장'

- 시방세계 9번
- 조계종 '어린이포교전대회'
- 호남 최초 비구니강원 설립 7번
- 미국 군중관련 시설 탐방기 8번
- 제4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 14번
- 이어령 박사 특강 중계
-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 28번
- 봉선사 강설대법회
- 우릉스님 '정토수부경' 24~25번
- 도반의 향기 17번
- 김영우 '꼭쇠 중대장'

“불조의 가르침 거울삼아...”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13일 개원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스님과 종회의원 76명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11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제14대 종회의원 스님들은 정법 스님의 대표선서를 통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개원사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중무행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도 원로의원 혜정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오늘 이자라는 영산의 법등을 밝혀 소림의 종지를 선양하고 전승해 갈 14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갖는 법석”이라며 “근기에 투합하는 방편을 열어 중생을 깨우치고 종문(宗門)의 정안으로 옳고 그릇됨을 가려 종지를 바로 잡고 대중이 저버리지 않은 풍규(風規)를 만들어 가려 불조의 법령을 드날릴 것”이라고 법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이용재 원장의 편자요법 건강 공개강좌

현대불교신문사 청운동 연수원에서 배달편자요법 공개강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연수원장 문광 이흥재 박사가 직접 개발한 배달편자요법은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편자를 붙여 아무런 통증 없이 경락을 조절하여 질병을 다스리는 새로운 요법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좌 일정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매주 수 목 금 주 3회)
오전반: 오전 10-12시 오후반: 오후 1-3시
- 강사: 문광 이흥재 박사(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장)
- 무료공개강좌: 11월 23일 오전 10시, 오후 1시 두차례 실시
- 동참금: 전과정 30만원(교재비 10만원 포함)
-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수여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02)737-3034

현대불교가 안국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주소: 서울시 은평구 안국동 175-07 안국빌딩
편집국: 광고팀(부0층), 구독: 관리부(10층)
대표전화: (02)2004-8200

경전수행률 통한 깨달음, 10대 강령 초정
통선사 강설대법회

월운 스님
법명경(11월 25일)
통선사 설립전, 031)527-1951-3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초 칩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빛고를불교아카데미중계 4면
11월 22일 오후 7시, 성철 스님 '특원전반상'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 주 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 전시품목 :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불교 및 포교용품, 종단 및 단체, 차 및 식품관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
-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TEL. 02-706-3493

